



파울루 벤투 남자축구대표팀 감독이 20일 터키 안탈리아 호텔 코벨리아 다이아몬드 골프 리조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대한축구협회 제공

옥석 가려질 몰도바전, 누가 살아남을까

터키 전훈 마무리 앞둔 벤투 감독 월드컵 최종예선 엔트리 고민

레바논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열린다. 해외파 6명이 합류할 예정이기에 터키 전지훈련 중인 27명 가운데 6~10명은 레바논행이 아닌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한다. 몰도바전에서 마지막으로 파울루 벤투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지만, 문은 너무나도 좁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21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몰도바와 평가전을 치른다. 지난 15일 아이슬란드전에 이은 터키 전지훈련 두 번째 평가전이다.

벤투 감독은 "아이슬란드전에서 중요했던 것은 플레이 방식, 그리고 짧은 훈련 기간과 시즌 초반임에도 우리 플레이 스타일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새로운 선수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소극"이라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선수들도 좋은 태도로 경기에 임했다"고 아이슬란드전을 돌아봤다.

벤투 감독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레바논과 7차전, 시리아와 8차전을 앞두고 K리그 위주로 터키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기간이 아니라 해외파 선수들의 합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최종예선 7, 8차전 명단 발표에 앞서 황의조(지롱탱 보르도)와 정우영(알 사드),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이재성(마인츠), 김민재(페네르바체), 황인범(루빈 카잔) 등 해외파 6명의 합류를 결정했다. 24일 터키로 합류해 25일 레바논으로 향하게 된다.

터키 전지훈련 중인 선수들 중 일부는 레바논이 아닌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K리그들에게 몰도바전이 중요한 이유다. 아이슬란드전에서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선수는 6명(골키퍼 2명 + 권경원 제외)이다. 이용(전북 현대), 최지욱(성남FC), 김대원(강원FC), 고승범(김천 상무), 이동준(울산 현대), 조영욱(FC서울)이다. 이용, 이동준은 꾸준히 벤투 감독과 호흡을 맞췄기에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몰도바전에서 기량을 뽐내야 한다.

아이슬란드전과 선발 명단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벤투 감독은 "중요한 것은 훈련을 하면서 선수들이 팀에 적응하는 것이다. 우리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하고, 훈련을 통해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몰도바전 초반 스타팅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지난 경기보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남은 기간 잘 훈련해 다가오는 최종예선 2경기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벤투 감독은 몰도바전 후 22일 훈련까지 마친 뒤 레바논행 비행기에 오를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벤투 감독은 "전지훈련 기간 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피지컬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수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정확한 타이밍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전술적, 기술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투 감독은 "두산 팬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면서 "항상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질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팬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아마 추어 시절을 포함해) 내 인생의 3분의 2인 25년 동안 야구를 했다"면서 "은퇴한다는 게 아직 믿기지 않지만 은퇴 기자회견까지 하는 걸 보면 '행복한 야구 선수'라고 생각한다"며 뿌듯한 소회를 드러냈다.

마운드와 작별한 유희관... "행복한 선수였다"

한국 프로야구 두산 구단 최초 좌완 100승을 달성한 유희관(36)이 현역에서 물러났다. '느림의 미학'으로 KBO 리그를 풍미했던 유쾌한 남자였지만 은퇴 회견에서는 눈물을 보였다.

유희관은 20일 두산의 홈 구장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3시즌 현역 생활을 마무리한 소회를 밝혔다

포스트시즌 미디어 데이에서 입담을 뽐내온 유희관은 "미디어데이에 자주 나오고 인터뷰도 꽤 해서 떨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떨린다"며 말문을 연 뒤 잠시 침묵했다. 이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준 구단주와 두산 프런트에 감사하다"면서 "입단할 때부터 많이 아껴주신 두산 역대 감독님과 코치님, 같이 땀 흘리면서 고생한 동료들께

도 감사하다"고 은퇴 소감을 밝혔다.

유희관은 "두산 팬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면서 "항상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질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팬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아마 추어 시절을 포함해) 내 인생의 3분의 2인 25년 동안 야구를 했다"면서 "은퇴한다는 게 아직 믿기지 않지만 은퇴 기자회견까지 하는 걸 보면 '행복한 야구 선수'라고 생각한다"며 뿌듯한 소회를 드러냈다.

태권도진흥재단, 카트만두모델칼리지와 업무협약 체결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19일 카트만두모델칼리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오영환 이사장, KMC Surendra 총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태권도 진흥 및 보급을 위한 협력, 상호 연계 가능한 태권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협력 등에 대해 협약했다.

앞서 재단은 네팔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태권도복, 용품 등 600여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네팔 주요 도시인 당카디 시가 추진한 학교 내 태권도 수업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복과 띠를 전달했다.

오영환 이사장은 "네팔 등 개도국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요르단, 콜롬비아 등 35개국에 도복과 용



품 등을 지원했다"며 "태권도 보급과 발전을 위해 공격개발원조 수원국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지소연 "네 번째 아시안컵, 반드시 우승할 것"

"아시안컵 우승을 하려고 왔어요."

여자 축구대표팀 에이스 지소연(첼시)의 눈은 사상 첫 아시안컵 우승으로 향했다.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아시안컵 출전. 첫 목표는 상위 5개국 이내에 들어 2023년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티켓을 따는 것이지만, 최종 목표는 우승이다.

지소연은 20일(한국시간) 인도에서 열린 2022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C조 베트남과 1차전(21일)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팀 전체적으로 준비가 잘 됐다.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첫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지난 2일부터 남해에서 담금질을 했다. 15일 결전지 인도로 이동해 현지 적응에 들어갔다.

지소연에게는 네 번째 아시안컵이다. 한국의 역대 최고 성적은 2003년 태국 대회 3위다.

지소연이 된 아시안컵에서는 2010년 중국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했고, 2014년 베트남 대회 4위, 요르단 대회 5위를 기록했다.



지소연은 "네 번째 아시안컵에 출전하는데 기대가 많이 된다"면서 "월드컵 티켓을 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 아시안컵 우승을 하려고 왔다. 감독님 말씀처럼 우리는 좋은 팀이고, 매 경기 우리 강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자신했다.

계속해서 "일단 첫 경기인 베트남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선수들과 영상도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 베트남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손흥민, 토트넘 극적 역전승에 "자격 충분한 동료들"

손흥민(토트넘)이 팀의 극적인 역전승에 "자격이 충분한 동료들"이라며 축하와 기쁨을 표했다.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레스터 시티와의 17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해리 케인의 동점골과 스테phen 베르흐베인의 두 골을 쥘어 3-2로 역전승했다.

부상으로 잠시 전력에서 이탈중인 손흥민은 베르흐베인이 골을 터트린 뒤 환호하는 모습의 구단 SNS 게시물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승리할) 자격이 충분한 동료들'이라고 적었다.

토트넘은 후반 추가시간 베르흐베인이 두 골을 몰아 넣어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 부임 후 정규리그 9경기 무패 행진(6승 3무)을 벌이며 리그 5위(승점 36·11승 3무 5패)로 올라섰다.

지난 6일 첼시와의 카라바오컵(리그컵) 4강 1차전을 치르고 나서 다리 근육 부상으로 재활 중인 손흥



민은 동료들과 그라운드에 함께 할 수는 없었다. 대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고 동료들을 격려했다. 또한 베르흐베인을 잡은 TV 중계화면을 캡처한 사진에는 '내 동생'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이 보이!!!!!!'라고 적는 등 애정이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노컷뉴스

대한적십자사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 적십자회비

인터넷

금융기관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포인트)

후원계좌 : 우리은행 005-346162-13-064 대한적십자사

후원 및 참여문의
☎ 1577-8179

문의 : 063)280-5821~2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홍보대사 소유진